

# 〈管城侯傳〉의 立傳 樣相과 連繫性

유기옥(우석대학교)

## 1. 緒言

이 논문은 權擘의 〈管城侯傳〉을 대상으로 소재의 取用 및 立傳 樣相과 寓意的 意味, 文學史的 位置와 連繫性을 비교 고찰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管城侯傳〉은 習齋 權擘의 『習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瘞을 소재로 한 假傳 作品이다. 이 작품은 習齋 權擘의 문학과 『習齋集』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작품의 존재가 확인 된 바, 假傳문학사에서 제재적 측면에서만도 주목을 끌만하다고 지적하였다.<sup>1)</sup>

習齋 權擘(1520:중종 15-1593:선조 26)은 조선중기 문신으로 企齋 申光漢(1484-1555)에게서 시를 배워 시명이 높았으며, 그의 필사본 『習齋集』

---

1)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習齋 權擘의 문학과 習齋集에 대하여〉 태학사, 1999, pp.556-557. “1541년 작자 21세 때의 습작인데 성격면에서 『濯纓集』에 실려 전하는 金駟孫의 〈管處士墓誌銘〉과 흡사하다”는 언급이 있다. 『習齋集』은 1608년 목판본 4권 1책 초간본과 1653년 중간본, 1942년 신활자본 삼간본, 25권 7책의 필사본이 있는데, 1995년 민창문화사에서 상하 두 권으로 발간한 영인본에는 필사본과 목판본 신활자본이 함께 합철되어 있다. 〈管城侯傳〉은 하권 필사본 pp.853-855와 활자본 pp.1157-1160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習齋集』 필사본 권25 맨 앞에 수록된 〈管城侯傳〉 제목 아래 辛丑年作이라 되어 있다.

에는 19세부터 73세까지 작품이 창작된 시기별로 3150수가 수록되어 있다.<sup>2)</sup> 본관은 安東이고 承旨 祺의 아들이자 石州 權驍의 부친이다.

그동안 붓을 立傳 대상으로 한 假傳 작품은 可軒 韓性履(1880년 경)의 <管城子傳>이 한국 假傳사의 거의 끝 무렵에 창작된 것으로, 假傳의 효시적인 唐代 韓愈(728-824)의 <毛穎傳> 이래 약 1100년 뒤인 19세기 후반에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기술되어 왔으나,<sup>3)</sup> <管城侯傳>이 소개된 이후 假傳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추가로 간략히 수정 언급되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sup>4)</sup> <管城侯傳>은 <毛穎傳>이 韓愈가 46세인 816년경 창작된 것으로 볼 때,<sup>5)</sup> 625년의 거리가 있으며 현재 발굴된 한국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 중에서 붓을 단독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가장 먼저 창작된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주목되는 작품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文房四友는 선비들의 필수적인 애완물로서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韓中 假傳文學史에 있어서 중요한 立傳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그 효시작인 <毛穎傳>은 그 후 假傳 작품을 창작하는 데 하나의 典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조선 조 후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假傳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활발히 진행되어 온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개별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은 물론, 동일 소재 작품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시적인 비교문학적 연구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그동안 文房四友系 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선행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sup>6)</sup> 文房四友는 선비들의 청렴 검소한 생활철학과 올곧

2) 정 민, 위의 책, p.541, p.545. 한편 허균의 答李生書에 汝章 權驍의 先人 權擘은 駱峰 申光漢에게서 배웠다고 적고 있다. 趙南權·鄭珉 共譯, 『韓國古典批評論 資料集』, 태학사, 1998. p.417.

3) 김창룡,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개문사, 1985, p.59.

4) 김창룡,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앤씨, 2006, p.178.

5) 韓昌黎集 제2책 제14권 答張籍書 注記에 의하면 <毛穎傳>은 원화 10년(816) 작임을 알 수 있다.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p.282. 주)10 참조.

6) 柳奇玉, 「存齋 朴允默의 假傳研究」, 『인문논총』 제23집, 전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_\_\_\_\_, 「文房四友의 文學的 變容-〈文崇四侯傳〉 評釋을 중심으로-」, 『韓國語文學論考』, 태학사, 1996.

\_\_\_\_\_, 「安擘의 文房四友傳 研究」, 『국어문학』 제33집, 국어문학회, 1998.

은 이념아래 사치스럽거나 번잡하지 않은 가운데 글방에 갖추게 된 필수 품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文房四友에 대해 남다른 애착과 性癖을 가지고, 假傳은 물론 箴 說 賦 銘 漢詩文 등에 담아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문헌에는 文房四譜 또는 文房四侯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sup>7)</sup> 그런데 중국의 경우 대체로 筆硯紙墨의 순서로, 한국의 경우 紙筆墨硯의 순서로 통칭된다.

이렇듯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현재 학계에 소개된 韓中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이 창작된 순서를 보면, 중국의 경우 <毛穎傳>(붓) <萬石君羅文傳>(벼루)과 같이 筆硯紙墨의 순서로 창작된 반면, 이제 한국의 경우 종이를 소재로 한 고려조 李詹(1345-1405)의 <楮生傳>을 필두로, 이어 붓을 소재로 한 <管城侯傳>이 출현하여 紙筆墨硯의 순으로 창작된 점도 흥미롭다.

이렇게 볼 때 또한 주목되는 것은 <管城侯傳>보다 앞에 나온 金駟孫(1464-1498)의 <管處士墓誌銘>이 붓을 소재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구성은 물론 소재의 取用면에서 그 영향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조 후기 申弘遠(1787-1865)의 <四友列傳>에서도 <管處士墓誌銘>에 나오는 朴訥이라는 한국 인명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점에서 그 영향관계와 변이 양상을 통해 연계성과 독립성을 고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假傳 작품의 소재적 원천에 대해서는 ‘假傳의 編綴性’과 ‘『太平

\_\_\_\_\_, 「文房四友系 假傳文學의 變移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제41집, 한국언어문학회, 1998.

\_\_\_\_\_, 「韓中 文房四友系 假傳의 文學的 變容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제43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_\_\_\_\_, 「申弘遠의 四友列傳 研究」, 『한국언어문학』 제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7) 김삼대자, 『朝鮮時代文房諸具』, 국립중앙박물관, 1992, p.172.  
이 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文房四譜 文房四侯라는 기록만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文房四友라는 용어 역시 宋나라 祝穆, 원나라 富大用 祝淵 등에 의해서 前集 後集 續集 別集 新集 遺集 등으로 편찬되었던 『事文類聚』別集 권 14에도 文房四友部가 나오는 바, 이곳에는 韓愈의 <毛穎傳>을 비롯 紙筆墨硯에 관련된 글들을 모아 놓았다. 한편 <萬石君羅文傳>과 <翟道侯傳>에는 文苑四貴라는 용어도 나온다.

廣記』의 영향을 언급한 이래,<sup>8)</sup> 오히려 『事文類聚』 『太平御覽』과 같은 類書에 취합된 假傳 문예창작의 기본적 참고자료가 마련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좋은 선례가 있어왔다.<sup>9)</sup> 그밖에 『淵鑑類函』 『文房四譜』 등 이들 類書에 나오는 부분적인 소재는 물론 이전에 창작된 작품의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대의 작품과 類書を 통해 이들 핵심 소재의 立傳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同異에 따른 변모양상과 寓義的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類書 외에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작품으로는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毛穎傳> <萬石君羅文傳> 文崇의 <(文崇)管城侯(毛元銳傳)>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붓을 의인화한 <管處士墓誌銘>의 경우 假傳의 사건구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文面上 그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후에 나온 작품은 필요한 경우 간단히 비교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sup>10)</sup> 이를 통해 立傳물의 素材的 源泉 및 문학적 변용 양상과 구조적 의미를 고찰하고, 조선조 사대부들의 글쓰기 양식과 방법, 상호 通時的인 連繫性을 통한 文學史的 位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 2. <管城侯傳>의 立傳 樣相과 意味

### 2.1. 事件構成과 類型的 性格

假傳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序頭部(導入部)-行蹟部(內容部, 展開部)-評結部(論贊部, 終結部, 論評部)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

8) 曹壽鶴, 「假傳의 編綴性」, 『영남어문학』 1권, 영남어문학회, 1974. 김현룡,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일지사, 1976.

9) 김창룡,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개문사, 1985.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앤씨, 2006에서 그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0) 자료는 安秉烈, 『韓國假傳研究』, 이우문화사, 1986. 부록 자료편(<四友列傳> pp.353-348), 김창룡 편역, 『중국 假傳 30선』, 태학사, 2000. 具滋武編, 『韓國文房諸友詩文譜』(上中下), 구영희, <文房四友傳>(中 544-547), 1994. 『동문선』XI(<管處士墓誌銘>), 김창룡, 『한국의 假傳文學』 上下, 태학사, 1997. 祝 穆, 『事文類聚』, 蘇易簡, 『文房四譜』를 참고함.

론 이를 다양하게 세분하여 논의할 수 있겠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선행된 분석 방법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序頭-先系-事蹟-終末-後系-評結 형식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부연하면 序頭는 주인공의 身元(姓名, 雅號, 出身地, 社會的身分: 官等), 先系는 주인공의 父祖 및 祖上, 事蹟은 주인공의 政治的 行적 혹은 思想的 업적, 終末은 주인공의 죽음과 歸老, 後系는 子孫과 支孫의 事蹟, 그리고 論贊형식의 評結部로 세분된다. 여기에서 序頭- 事蹟- 評結은 기본적인 固定體系라 할 수 있으며, 序頭와 先系는 源流, 事蹟과 終末은 主流, 後系는 支流로 구분된다.<sup>11)</sup>

이제 논지 전개와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내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의 유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 <序頭> 1. 侯의 성은 毛씨요, 이름은 記이며 자는 述로 管城사람이다.
- <先系> 2. 先系는 개벽 이래 이미 세상에 나왔으며, 書契時에 이르러 伏羲氏를 도와 八卦를 그렸고 蒼詰과 함께 글자를 만들었다.
3. 황제가 錄功하여 등용하니 毛씨는 이로부터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
4. 周나라에 이르러 孔子를 따라 春秋를 지었는데 魯라에서는 기린의 잡힘으로써 거절을 당했다.
5. 마침내 족속을 모아 中山에 살게 되었는데 秦始皇 때 蒙恬 장군에 의해 毛穎을 얻게 되었다.
6. 진시황에게 천거하자 管城에 봉하고 中書君이라 불렀다.
7. 승상 李斯를 따라 篆書와 隸書를 만들었다. 李斯는 이를 기특하게 여겨 매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8. 焚書坑儒의 화가 일어나자 海內的 유생들이 거의 화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毛穎은 李斯에 힘입어 화를 면하고 管城에서 壽終할 수 있었다. 자손들이 이로 인해 家系를 이루게 되었다.
9. 魏晉에 이르러 鍾繇와 王羲之의 집에 출입하여 능력을 드러냄에 사람들이 그를 소중히 여겼다.
10. 혹자는 五色筆의 상서로움을 姜淹에게 바치고, 혹자는 靑鏤管의 기이함을 紀小瑜에게 바쳤다.

11) 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개문사, 1985, pp.71-72.

11. 唐代에 毛花者는 李白과 더불어 마음으로 일치된 친구가 되었다. 李白을 따라 便殿에 들어 詔書를 찬술하니 임금의 뜻에 칭합하였다. 玄宗이 宮嬪 10여 명으로 좌우에서 모시고 돕게 할 정도로 총애가 두터웠다.
  12. 毛某라는 자는 史家에선 이름을 유실하였지만 柳公權을 따라 直諫하여 세상에 칭송받는 자가 되었다.
  13. 毛椽자는 王珣과 함께 자나 깨나 떨어지지 않았으며 王珣은 그를 매우 공경하고 소중히 여겼다.
  14. 五代에는 毛錐子라는 이가 있었는데 弘肇과 더불어 사이가 좋지 않아 결국 절교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
  15. 역대 君臣들이 모두 받들어 소중히 여긴 것은 아니며, 尖頭奴(머리가 뾰족한 종)로 불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어진 이를 輕慢히 여기는 일이 이와 같았으니 그 때 일을 가히 알만하다.
  16. 記의 부친은 宥銳로 같은 郡내 管씨를 아내로 맞아 記를 낳았다.
- <事蹟> 17. ①記의 자질은 빼어나게 총명하여 어려서부터 이미 문장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사람들과 글을 논함에 言辭가 분명하고 수려했으며 그 날카로움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②움직임을 좋아하고 고요함이 없었으나 기량이 비범하며 글 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세속에 구애되지 않아 無心子라 불렸다. ③약관에 京師에 노닐때 公卿으로부터 士庶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듣고 보기를 청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④문장을 지을 때면 종이를 잡고 곧바로 나아가니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함께 놀기를 원했다.
  18. 대신이 記를 천거하니 임금이 文德殿으로 불러서 보고 그의 능력을 묻자, 수록하는 일로 책임을 맡겨 예비하게 한다면, 비록 큰 지렛대의 힘은 아니지만 微力을 다할 것을 아뢴다.<sup>12)</sup>
  19. 임금이 기뻐하며 中書의 待詔를 시키고, 中書舍人의 벼슬을 제수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승진하여 中書丞이 되었다.
  20. 이 때 尙書令 陶泓, 客卿 陳玄, 中書侍郎 楮知白이 모두 학문으로 총애를 얻었는데, 서로 膠漆과 같이 결합하여 어울리는 즐거움이 대단했다. 사람들이 文苑의 네 貴人이라 하였다.
  21. 매번 詔書와 글 짓는 일에 반드시 네 사람이 함께 했는데, 그중

12) 이 부분은 앞 뒤 두 글자가 빠져 있어 후반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倘臣得蒙收錄以備任使則 雖無長杠之才亦可得(缺)毫髮之(缺)

- 記의 윤색한 공이 더욱 커서 임금은 항상 이를 기리고 장려하였다.
22. 얼마 후 文淵閣 太學士 겸 中書平章事に 발탁되어 임명되었다.
23. 매번 朝會시에는 임금이 특별한 예우로 대하고 毛學士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24. ①記의 성품은 글을 좋아하고 武를 싫어하여 文士들과 노니는 것을 좋아하였다. ②武人들이 칭하면 부득이 나아감에 武人들이 매우 미워하였으며, 혹자는 임금께 참조하여 記의 성품이 貪墨하여 결백하다는 일컬음이 없다고 하였다. ③이에 임금은 記를 등용한 것은 다만, 그의 문장과 書翰을 관장하게 할 뿐이라고 말하자 좌우에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25. ①임금이 詔書를 내려 功이 있는데도 賞을 주지 않는 일은 堯舜임금이라도 능히 천하에 권해볼 도리가 없을 것이요, ②文淵閣 太學士 毛記는 오래도록 書籍을 전담하고 文治를 조성하여 그 공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③그를 봉하여 管城侯가 되게 하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고 中書에 머물며 자신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다.
- <終末> 26. 記가 관을 벗고 과분함을 사려하며 이제 몸이 늙고 쓸모없게 되어 封邑에 물러나기를 청하자 결국 그 노쇠함을 가엾게 여겨 청을 따르게 된다.
27. 드디어 管城에 돌아가 天壽를 누리고 마치게 된다.
- <後系> 28. 아들 銹이 그 뒤를 잇게 되었다.
- <評結> 29. 毛씨는 대대로 管城에 살았으며, 記는 재능이 빼어나게 우수한 자질로 왕의 좌우에서 文柄을 관장하고, 문장의 功業으로 세상에 이름이 크게 드러났으며, 끝내 諸侯의 印을 차고 錦衣還鄉하였으니 또한 아름답지 아니한가!

현재 발굴된 조선조 작품 중에서 한국 최초의 붓 소재 假傳 작품으로 가장 먼저 창작되었고, 처음 소개하는 작품인 관계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글월이 생긴 書契 시대로부터 周 秦 魏 晉 唐 五代에 이르기까지 붓과 관련된 중국 역대의 인문의 역사를 간략히 제시하고, 주인공 毛記의 탁월한 능력으로 끝까지 임금의 총애 속에 대성하는 가운데, 이를 기리는 사건구성으로 되어 있다. 구성 형식 및 내용면에서는 초기에 나온 文房四友系 중국 작품들과 별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를 종합해 보면 앞에서 제시한 序頭(1)-先系(2-16)-事跡(17-25)-終末(26-27)-後系(28)-評結(29)의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 근원적으로는 史記 列傳에서 비롯된 正格의 유형임을 보여준다.

논의의 편의상 假傳의 原流格인 <毛穎傳>과 비교해보면, <毛穎傳>의 구성은 주인공의 출신과 先系, 毛穎의 行蹟, 자손에 관한 후일담(後系), 毛穎에 관한 評結(太史公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초기 假傳인 <萬石君羅文傳>과 <(文崇)管城侯(毛元銳傳)><sup>13)</sup> 역시 이 6단계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에 앞서 성종 6년 癸丑年 1493년 경에 창작된 <管處士墓誌銘> 역시 假傳과 동일한 구성 형식을 고루 갖추고 있는 점이다. 다만 작자의 주관적 심회를 밝힌 평결부는, 後系와 관련하여 시신을 수습할 자식이 없어 더욱 슬프다는 내용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또한 墓誌銘과 관련시켜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인생의 上壽는 백년인데도 오히려 짧다 하는데, 반년밖에 살지 못한 주인공 術古의 죽음을 애도하고 死諡를 文悼處士라고 안장 하는 내용과 銘이 덧붙여진 점만 차이를 보일 뿐, 오히려 이 작품이 후대 假傳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수수한 점이 주목된다.<sup>14)</sup>

史傳 正體의 삼단구성에 따라 분석한 安秉高의 통계에 의하면, 唐代 假傳은 史傳 정체의 삼단구성에 얽매어 허구를 사실화하기 위한 지나친 집착, 또는 作意를 강조하려다 행적부 내용을 약화시킨 경향이 있는 반면,

13) 宋代 蘇易簡이 찬한 『文房四譜』 안에 수록된 작품으로 창작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唐代 작품으로 추증된다. 柳奇玉, 「文房四友의 文學的 變容-〈文崇四侯傳〉 評釋을 중심으로-」, 『韓國語文學論考』, 태학사, 1976, p.473. 이 작품은 <管城侯> <文崇即墨侯石虛中傳> <文崇好時侯楮知白傳> <文崇松滋侯易玄光傳>이 筆硯紙墨 순으로 각각 분리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管城侯> 작품만 제목이 통일성을 잃고 있는데, <管城侯傳>이 아니라 내용상 <(文崇)管城侯(毛元銳傳)>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 네 작품을 <文崇四侯傳>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후 주 19)번 참고.

14) 조선 전기 金朝孫(1464-1498)에 의해 창작된 이 작품은, 『동문선』 제20권 墓誌銘에 붓을 소재로 한 事物의 墓誌銘이 수록된 특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의 말미에 銘에 나오는 癸丑年과 스승 金宗直의 諡號문제와 戊午士禍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寓意하는 내용을 통해 1493년 이전에 창작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후술하거니와 權擘의 <管城侯傳>은 물론 申弘遠의 <四友列傳>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문학사적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宋代 蘇軾의 작품은 내용 위주로 구성상의 특색을 보여준다고 하였다.<sup>15)</sup> <管城侯傳>의 경우 총 917자로 서두 397자 행적 476자 평결 44자인데 역시 서두 부분이 비교적 적지 않은 분량임을 알 수 있다.<sup>16)</sup>

文房四友 중 중이를 최초로 立傳한 고려조 李詹의 <楮生傳>은 서두 선계 사적 후계 평결 형식으로, 南有容(1698-1773)의 <毛穎傳補>에서는 서두 선계 사적 종말 평결로 支流部가 없으며, 韓星履의 <管城子傳>은 서두 사적 평결로 原流部 終末部 後系部가 없다. 따라서 이들 작품은 대체로 일대기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管城子傳>의 경우 주인공의 半生만 다루고 있어 史傳의 기본 형식에서 벗어난 變體라 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결구에 있어서 假傳의 原流인 <毛穎傳>이 젊어서는 왕의 총애를 받다가 만년에는 소외되어 封邑으로 돌아가 생애를 마치는 내용으로, ‘功賞이 노고를 보상해 주지 못하고 늙어 쓸모없으면 버리는 인간의 경박한 처사를 풍자한 것’과는 상반된 점이 주목된다. 예컨대 <毛穎傳>에서 ‘功勞에 맞게 상을 주지 않고 늙었다고 하여 버림받았으니, 秦나라는 다만 적은 은총을 베푸는데 그쳤음을 알겠다’(賞不酬勞 以老見疎 秦直小恩哉) 라고 하여, 이와 동일한 양상이 蘇軾의 <萬石君羅文傳>에도 이어진다. 君臣관계에 있어서 신하의 功過와 賢否를 논하고, 近臣과 幸臣의 처신을 寓意한 이래, 그 후 많은 문인들이 자신의 울분을 寓意하거나 세대를 풍자하고, 작가의 經世觀과 정치적 안목을 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된 韓中 초기 假傳의 일반적 성격과 비교해 보면, <管城侯傳>은 주인공 毛記가 끝까지 왕의 좌우에서 文柄을 관장하고 문장의 功

15) 安炳高, 「蘇東坡의 假傳考」, 중국문학보 2호, 1975, pp.40-41. 이에 의하면 唐代 <毛穎傳>은 총 717자의 분량으로 서두 257자 행적 337자 평결 123자이며, 宋代 <萬石君羅文傳>은 총 1169자로 서두 136자 행적 966자 평결 67자로, <毛穎傳>은 행적이 47%, <萬石君羅文傳>은 행적이 86%이다. <管城侯傳>은 행적이 52%에 해당된다. 최초 假傳인 고려조 <麴醇傳>은 총 900자로 서두 300자 행적 520자 평결 80자로 행적이 57% 분량이다. 초기 假傳의 경우 序頭 비대 현상을 보인다.

16) <管城侯傳>은 총 917자의 분량으로 필사본과 활자본 동일하게 5자가 缺字인데 이를 포함한 숫자이다. 필사본과 활자본을 대조해보면, 秦始皇時(始皇之時) 毛氏隱居其地(山) 海內儒士(生) 弘肇(早)絶復見과 같이 네 곳에는 글자가 달리 표기되고 있다. 괄호 안의 글자가 필사본임.

業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 끝내 諸侯의 印을 차고 錦衣還鄉 한 것을 기리는 내용인 점에서 상호 차이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文崇) 管城侯(毛元銳傳)>과 흡사하다.

評結部 虛頭의 論讚 형식을 살펴보면, 여타 작품과는 달리 史氏贊曰이란 용어를 함용하고 있다. 이 史評 부분은 내용상 史家의 褒貶이 담겨 있으며 대체로 작자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史評은 春秋左傳(君子), 史記(太史公), 班固(贊), 荀悅(論), 東觀(敍), 謝承(詮), 陳壽(評) 등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文房四友系 작품을 종합해 보면 太史公曰(<毛穎傳>, <楮生傳>, <文房四友傳>), 史臣曰(<管城侯傳>, <好時侯楮知白傳>), 贊曰(<楮白傳>, <毛元鋒傳>, <毛穎傳補>), 混頓子曰(申弘遠 <四友列傳>), 野史氏曰(<管城子傳>), 史氏曰(<毛穎後傳>), 蘭莊子曰(<楮待制傳>)과 같이 史傳의 대표적 논찬 형식인 太史公曰(史記), 贊曰(漢書) 등의 표현을 비롯하여 蘭莊子 混頓子와 같이 사적이고 임의적인 표현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張潮의 <楮先生傳>은 史評이 없다.

文房四友系 假傳을 통시적으로 상고해보면, 초기 작품의 경우 四友 중 어느 한 소재에 주안점을 두고 작자의 독창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현학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고사를 부가적으로 활용하곤 하지만, 상호 영향 아래 구성형식은 물론 표현수법과 소재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이를 수용하거나 다채롭게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管城侯傳>의 경우 형식면에서 <毛穎傳>을 답습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萬石君羅文傳>과 유사한 표현이 적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管處士墓誌銘>의 영향과 상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17) 李炳赫, 「李穀의 竹夫人傳」, 『韓國漢文學의 探究』, 국학자료원, 2003, p.203.

## 2.2. 素材의 取用 樣相과 寓意的 意味

이 장에서는 소재의 取用과 立傳 양상 및 내용상의 同異와 變容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남긴 文房四友系 假傳은 물론 賦와 같은 漢詩文을 창작함에 있어서, 그 소재적 원천을 唐宋代 文崇의 <四侯傳>과 蘇易簡의 『文房四譜』나 『事文類聚』와 같은 類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조선 초 大觀齋 沈義의 <石虛中賦>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宋代 蘇易簡이 편찬한 『文房四譜』에는 筆硯紙墨 순으로 관련 기사와 함께, 文崇의 假傳인 <(文崇)管城侯(毛元銳傳)> <文崇即墨侯石虛中傳> <文崇好時侯楮知白傳> <文崇松滋侯易玄光傳>이 각각 소재별로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sup>19)</sup> 그곳에는 물론 『事文類聚』에 나오는 일련의 동일한 기사들도 함께 채록되어 있다. 그동안 假傳의 소재적 원천으로 類書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논한 연구 결과를 보면, 唐宋明代에 걸쳐 중국 類書의 백미로 꼽히는 唐의 『禮文類聚』, 宋의 『太平御覽』, 『事文類聚』 등이 대중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았다. 이 경우 사대부 특수층에는 『太平御覽』이, 文士 일반층에는 『事文類聚』가 類書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科試의 출제 자료로 이용되기까지 한 『事文類聚』는 이 책이 간행된 1100년 대 후반 이후, 임춘과 이규보의 노년 때쯤에 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0)</sup> 『事文類聚』 안에는 <毛穎傳>과 <萬石君羅文傳>이 수록되어 있으며 文房四友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이 文房四友部 한 곳에 총집해 있다.

18) <石虛中賦> 말미를 보면, 贊 가운데, “文崇의 傳이 있고, 蘇易簡의 譜가 있다”(又而贊曰文崇有傳 易簡有譜)는 표현이 나온다. 具滋武編, 『韓國文房諸友詩文譜』(上中下), 보경문화사, 1994, 中권 343면.

19) 宋代에 편찬된 『文房四譜』는 1781년에 집성된 『四庫全書』 子 譜錄類 學海類編 193. 194책에 해당된다. 文崇 <管城侯> 작품은 작품 소재와 나머지 세 작품의 제목을 고려해 볼 때, <(文崇)管城侯(毛元銳傳)>으로 제명을 삼을 수 있다. 앞의 주 18)을 참고해 보면, 中間 작품 제목에 사용되어 불분명하게 논의 된 ‘文崇’이 글을 숭상한다는 의미보다는 작자명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文房四友의 文學的 變容-〈文崇四侯傳〉 評釋을 중심으로-」, 태학사, 『韓國語文學論考』, 1996, p.473 주 4)에서 『文房四譜』 안에 <即墨侯石虛中傳>의 작자를 李觀이라 소개한 곳도 있어 唐代 韓愈와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는 元賓이란 字를 가진 인물을 중국인명사전에서 소개하고, 작품 제목안의 ‘文崇’이 글을 숭상한다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았으나 위 <石虛中賦>를 보면 작자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김창룡,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p.119. 122. 125.

이제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제목과 등장인물의 의인화 명칭, 출신지, 위인 묘사, 주요 인용고사 및 핵심 소재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상호 영향관계와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文房四友 계통의 假傳들은 일견 상호 倣似하며, 대체로 文面上 유사한 표현들을 보면 앞서 창작된 작품의 意想을 적절히 조절 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紙筆墨硯이 文苑四貴로 불리다가 중국에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공통된 결구 내에서, 이들 중 어느 한 소재가 주동 역할과 보조적 역할의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작품 상호간의 영향관계 및 절충을 보여주고 있어 그 동이에 관한 변별 작업을 위해서는 精緻한 분석이 요구된다. 예컨대 <管城侯傳>은 특히 소재의 취용과 상투적인 표현기법을 볼 때, <毛穎傳> <文崇四侯傳>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管處士墓誌銘>과 <萬石君羅文傳>의 영향관계를 다양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萬石君羅文傳>의 경우 字句마저 동일한 경우를 적지 않게 적출할 수 있다.<sup>21)</sup>

먼저 작품 제명 및 자신을 소개한 序頭와 先系 부분 중 四友의 의인화 명칭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管城侯傳>이라는 표제는 일찍이 <毛穎傳>에서 毛穎을 管城에 봉하며 管城子(封諸管城 號曰管城子)라 부른 곳에서 그 비롯됨을 볼 수 있다. 그 후 여타 작품 중에도 대체로 管城 管城子 管城侯라는 용어가 襲用되고 있다. 전술한 文崇의 <管城侯>라는 작품에서도 관작을 표제로 사용하여 <(文崇)管城侯(毛元銳傳)>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申弘遠의 <四友列傳>과 韓星履의 붓 소재 작품명은 모두 <管城子傳>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제명뿐만 아니라 대부분 先系나 주인공이 공훈으로 管城侯에 봉해지는 관용구는, 붓대 안에 붓털을 모아 마치

21) <萬石君羅文傳>(김창룡 편역, 『중국 假傳 30선』, pp.209-211)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臣幸得收錄以備任使(尙臣得蒙收錄以備任使則) 蒙召見文德展(上召見文德殿譚記曰) 四人同心相得歡甚(結爲膠漆相得<歡>甚) 時以爲文苑四貴(時人謂之文苑四貴) 有功而賞不及 雖唐虞不能以相勸(蓋聞有功不賞雖唐虞不能以勸天下) 助成文治 厥功茂焉(毛記久典書籍 助成文治 厥功茂焉) 性貪墨無潔白稱(記性貪墨無潔白稱)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표현수법은 물론 구성형식상 이를 답습한 듯 보인다. 괄호 안이 <管城侯傳>으로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앞뒤 내용을 부기하였으며, 위 相得<歡>甚 중 <歡>은 원문의 缺字를 <萬石君羅文傳>에 의거 보완한 것임.

城을 만든 것처럼 붓대의 모습을 형용한 표현이다. 여타 동계 작품의 제목을 보면 <毛穎傳> <管城侯傳> <毛穎後傳> <毛穎傳補> <毛元鋒傳> <管城子傳> 등과 같이 역시 붓 끝 모양이나 털을 모아 만든 붓의 외형상 특징을 형상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을 소개한 序頭를 보면 侯의 성은 毛씨요, 명은 記이며 자는 述로 管城사람이라고 했는데, 『事文類聚』를 비롯 類書에서 붓을 소개한 도입부분을 보면, 한결같이 ‘筆述也 述事而書之也 謂述事而言之也’ 라는 풀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述을 字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管處士墓誌銘>에서는 처사의 이름은 述이요 자는 述古요, 본성은 毛씨라 하여 述事를 述古로 원용하고 있다.<sup>22)</sup> 이름을 記라 한 것은 <毛穎傳>에서 毛穎의 위인됨을 묘사할 때, 기억력이 좋고 기민하다고 한 ‘強記’(穎爲人強記而便敏)라는 표현 이래, 李詹의 <楮生傳>에서는 종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바, 붓을 통해 종이에 題書의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러한 붓과 종이의 역할을 엮 두해 둔 표현에서 記라는 이름을 변용하였다고 보여진다.

四友名을 보면 尙書令陶泓 客卿陳玄 中書侍郎楮知白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원래 陶泓과 陳玄은 <毛穎傳>에서, 楮知白은 <文崇四侯傳>에서 그 용처를 볼 수 있다. 한편 字와 號 後孫 등의 명칭을 전후기 작품과 비교해보면, 文鋒·毛元銳(<文崇四侯傳>, <文房四友傳>), 毛學士·毛穎(<毛穎傳>), 毛元鋒·毛銳(<毛元鋒傳>), 管城子(<管城子傳>), 士載(<文崇管城侯毛元銳傳>), 穎夫·穎鑿(<四友列傳>), 毛純(<萬石君羅文傳>) 등을 쓰고 있다.

<管城侯傳>의 경우 毛記의 부친은 元銳로 같은 郡에 사는 管氏를 아내로 맞아 記를 낳았다는 표현이 나온다. 五代 시에는 毛錐子 尖頭奴 기사가 인용되고, 後系 부분을 보면 毛記의 아들 銛이 대를 잇게 되었다는 표현이 나온다.<sup>23)</sup> 물론 尖頭奴의 경우 자기 주견이 없이 남에게 부림을

22) 處士 名述 字述古 本姓毛氏 毛刺史 管城侯 毛元銳 皆其先也(처사의 이름은 述이요, 자는 述古요, 본성은 毛씨이니, 모자사 관성후 모원제가 모두 그의 선조이다.) 이 管城侯 毛元銳 毫州刺史 등은 <文崇四侯傳>에 先例가 있다.

당하기만 하며 外樣이 뾰족하기 때문에, 머리가 뾰족한 종이라는 비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毛錐子 鈔 역시 여타 동일 소재 작품의 毛穎 毛元銳 文鋒 毛元鋒 文銳 등과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붓의 날카로운 외형 및 내면적 속성을 형상화하여, 세상의 시비와 논쟁의 실마리를 날카롭게 論斷하는 붓의 역할을 문학적으로 변용한 寓意的 수법이다. 후기 작품 중에는 이를 통해 正言 直筆과 같은 언론의 위력이나 이에서 비롯된 筆禍를 寓意하는 작품도 있다.<sup>24)</sup> 士載(<文崇管城侯毛元銳傳>)라는 표현은 선비와 항상 함께하는 愛玩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先系를 보면, 앞에 사건구성에서 소개한 작품 전반부의 結繩, 書契, 伏羲氏 八卦, 蒼詰作字, 春秋絕筆(獲麟而見絕於魯), 蒙恬推薦, 李斯와 焚書 坑儒, 魏晉時 鍾繇와 書聖으로 일컬어지는 王羲之 관련 기사(出入鍾王家) 등은 여타 대부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이를 약간 씩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후 이어지는 <管城侯傳>에 표현된 핵심 소재를 앞 事件構成에서 소개한 번호순으로 살펴보면, 7. 李斯를 따라 篆書와 隸書를 만듦(工篆隸), 10. 五色筆과 靑鏤管, 11. 唐代 毛花子와 李白과의 神交, 11-12. 玄宗의 宮嬪고사와 唐末 柳公權의 直諫, 13. 毛椽子와 王珣과의 相善 관계, 14. 五代時 毛錐子와 弘肇, 15. 尖頭奴 기사, 簡賢如此 時事可知, 17. 喜動無靜, 無心子, 24. 喜文惡武(武人不好), 貪墨無潔白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소재 역시 『文房四譜』 『淵鑑類涵』에 나오는 기사가 더 자세하긴 하지만, 국내에 도래한 시기 및 열람의 容易 여부에 따라, 대부분 이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事文類聚』 가운데 붓을 다루는 항목에 충집된 내용을 활용하여 이와 매우 倣似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假傳 창작 및 作意에 있어서, 문체상 상호 이질적인 <管處士墓誌銘>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점이

23) 『淵鑑類涵』 筆四에는 不鈔加砥라는 표현이 나온다.

24) 柳奇玉, 「韓中 文房四友系 假傳의 文學的 變容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제43집, 한국언어학회, 1999. p.142.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韓星履의 <管城子傳>을 들 수 있다.

다. 예컨대 두 작품이 양식만 다를 뿐 이들 내용이 시간적인 순서로 기술되기 때문에, <管處士墓誌銘>이 좀 더 다채롭고 인용고사가 한층 다양한긴 하지만, 이상에서 기술된 내용들이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일치된 순서로 드러나며, 일부 變容된 모습만을 보이는 점이다. 특히 그 직접적인 영향관계로 짐작되는 대표적인 예로, 앞의 <管城侯傳> 사건 구성 10에 소개한 先系 내용 중에, 魏晉時에 이르러 鍾繇와 王羲之의 집안에 출입하여 그 능력을 발휘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소중히 여겼으며, 그 후 ‘혹자는 五色筆의 상서로움을 姜淹에게 바쳤고, 혹자는 靑鏤管의 기이함을 紀小瑜에게 바쳤다’는 내용을 보면, <管處士墓誌銘>에서도 후세에 毛의 특이한 것을 꿈꾼 자는 문장이 반드시 진보하였다는 대목과 함께 字句마저 동일함을 보여준다.<sup>25)</sup>

이와 더불어 假傳 창작에 이처럼 <管處士墓誌銘>의 영향관계를 좀 더 확실히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후기의 <四友列傳>에 이르면 <管處士墓誌銘>에 나오는 서예가 神童 朴訥<sup>26)</sup>이라는 조선 초 人名이 그대로 수용

25) 至魏晉出入鍾王家 以術其能 人皆重之 其後或效五色瑞於江淹 或呈靑鏤異於紀小瑜(<管城侯傳>)

後世夢毛有異者 詞必進 嘗效五色瑞於江淹 又呈靑鏤異於紀小瑜 若和凝諸人 莫不有驗(<管處士墓誌銘>) 속동문선권지20, 고전국역총서 『동문선』 XI, 민족문화추진회, p.793. 그 후 申弘遠의 <四友列傳>에도 後呈五色瑞於姜淹符中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事文類聚』, <南史 江淹傳>, 梁 鍾嶸의 <詩品> 등 類書에 의하면, 姜淹은 꿈에 郭璞이라는 자에게 五色筆(五彩妙筆)을 돌려준 후, 다시는 美句와 成語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상에서는 姜淹의 재주가 다했다(江淹才盡)는 고사가 있다.(『漢語大詞典』 五色筆, 還筆 참조), 紀少瑜의 경우 꿈에 陸倕라는 사람으로부터 靑鏤管筆을 받은 후 文思가 날로 진보했다(紀少瑜夢陸倕 以一束靑鏤管筆 投之 文思日進: 『事文類聚』別集 권14 文房四友部, 筆, 夢靑鏤管筆, p.415)는 고사가 나온다. 한편 <管城侯傳>에서는 紀少瑜를 絶少瑜로 표기하고 있다. 이로 보면 假傳을 창작함에 있어서 『事文類聚』와 같은 백과사전적인 類書의 영향이 우선순위에 있음과 동시에 같은 양식의 假傳은 물론 문체가 다른 작품도 체제 및 소재의 원천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6) 朴訥은 조선 초 명필 朴耕의 아들로 朴耕이 서자출신인데 무척 가난하여, 金駟孫이 朴訥의 진취를 생각하며 朴訥의 글씨를 품평한 姜渾의 글씨를 보고, 그 뒤에 적었던 글을 보면, 朴訥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인재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의 습속을 애석히 여기는 표현이 나온다.(이중범, 이중범의 사립열전, 김일손 당시의 죽음은 하늘의 시샘이었다③, 眞儒의 길, 참고) 한편, <管處士墓誌銘>에는 陶淵明과 孟郊 등의 고사를 취해 私諱를 정하는 내용 안에, 姜木溪와 상의하여 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木溪集을 남긴 연산군과 중종대 명문장가 姜渾(1464-1519)임을 알 수 있다. 작자 金駟孫은 金宗直의 문하에서 鄭汝昌 姜渾 등과 깊이 교류한 인물이다. 朴訥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다. 일찍이 국내

뭍은 물론, 붓을 의인화한 管城子의 경우 본래 毛刺史 毛穎의 후예로 이름은 尾生이며 지는 穎夫라는 표현이 나오는데,<sup>27)</sup> 이중 '尾生'이라는 명칭도 이미 <管處士墓誌銘>에서 述古의 부친 이름으로 등장한다.<sup>28)</sup> 尾生이란 표현은 붓은 꼬리털이 중요하며 직필을 통해 是是非非를 가리는 붓의 기능을 寓意的이며 力動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亦堂 具永會(1911-1984)의 <文房四友傳>에서 毛穎의 字를 柔直이라 한 것과 비교해 보면,<sup>29)</sup> 이 역시 부드러우면서도 直筆을 논하는 붓의 속성을 寓意的으로 의인화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亥生, 羔裘族, 동서남북에 중앙을 차지한 증양색(황색)을 받아 귀하기 때문에 管子라 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표현 등, <四友列傳>에서 많은 부분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점을 통해 그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상의 소재들을 문학적으로 변용하여 작품 전반에 표출된 작가의 作意와 主題意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假傳 작품의 저작동기와 주제의식은 史傳 正體의 영향 아래, 일부 서두부분에 드러나는 작품도 있다. 일부는 등장인물의 행적을 통해 작품 전반에 용해되어 암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평결부 論贊에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앞서 사건구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管城侯傳>은 주인공 毛記가 종신 임금의 총애를 받는 가운데 끝까지 왕의 좌우에서 文治上的 권력

이름이 작품 안에 직접 기록된 특색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된다. 특히 작품 안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붓이 중국에서 칭송받는 내용은 물론 한국적인 소재들을 삽입하여 자긍심과 자주적 색채를 모색한 점에서 획기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管處士墓誌銘>이 붓을 의인화하여 후대 假傳文學에 끼친 영향관계와 문학사적 위상은 주목할 만하다.

- 27) 柳奇玉, 『申弘遠의 四友列傳 研究』, 『한국언어문학』 제51집, 2003, p.415, 418. 한편, 필자는 「文房四友系 假傳文學의 變異樣相과 意味」(『한국언어문학』 제41집, 1998, p.93)에서 朴訥을 朴祥으로 誤認하였으나, 이처럼 조선 초 인명이 文房四友系 의인문학에 등장하는 선례도 <管處士墓誌銘>에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 28) 大抵管氏 性貪墨 述古黃冠族 自着道服 外貌清淨 其父名尾生 輕躁無行 世號黃狂子 (무릇 관씨는 성질이 탐묵하다. 술고는 황관족으로 도복을 입고 겹으로 맑고 깨끗한 것을 사모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은 '尾生'인데 경솔하여 조행이 없어 세상에서 황광자라 부른다.) (『동문선』, 전계서, p.794)
- 29) 毛穎 字柔直 其先出於中山 氏族數多 而皆世襲管城之爵 顯揚於世(亦堂遺稿, 具滋武編, 『韓國文房諸友詩文譜』(中), 보경문화사, 1994, p.544)

을 주관하여 문장으로 이룬 공적이 세상에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끝내 諸侯印을 차고 錦衣還鄉 하는 것을 기리는 내용인 점에서, 초기작인 <毛穎傳>과 <萬石君羅文傳>의 주제의식과는 상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두 작품은 寵臣이 늙어서 소외되거나 때에 맞춰 물러나지 않아, 이른바 時中을 지키지 못한 것을 경계하는 忠君戒臣의 의미가 부각된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sup>30)</sup> 특히 <毛穎傳>은 ‘功賞이 勞苦를 보상해주지 못하고, 늙어 쓸모없으면 버리는 인간의 경박한 처사를 풍자’한 작품으로 볼 때,<sup>31)</sup> 작자 韓愈는 ‘3세에 부모를 여의고 15세에 형마저 잃은 그의 관료생활은 유배생활을 겪는 등 불우와 울분이 컸던 작가로, <毛穎傳>의 作意가 자신의 불우를 알아주지 못하는 시대를 우의하기 위해 집필했다는 점’<sup>32)</sup>과 아래 인용문을 보면 韓愈나 소식의 작품과도 변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假傳은 대개 현실에 불만과 울적을 지닌 문인들이 그들의 鬱結을 푸는 수단으로 해학과 풍자로 설분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蘇軾도 이 같은 怨憤을 지닌 作家이면서도 假傳에서 이러한 怨憤은 원망이나 해학이 아닌 平談으로 순화시켜 작품적 품위를 높은 문학성을 보여준다.<sup>33)</sup>

이렇게 볼 때, <管城侯傳>은 文崇의 <四侯傳>이 주로 정성을 다 해 남다른 공적을 세우고, 終身 총애를 받는 신하의 행적을 기술한 점<sup>34)</sup>에서 오히려 <(文崇)管城侯(毛元銳傳)>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조선 후기 한국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들이, 선비들의 학문하는 자세 및 학문을 선양하는 내용, 선비들의 處世訓과 交友의 도, 世道와 인심을

30) 安秉高, 「寓言傳記의 形式과 題材」, 『중국학논총』 4집,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1988, pp.25-36.

31) 安秉高, 「傳의 文學的 變容」, 『한국학논총』 2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79, p.144.

32) 安秉高, 「蘇東坡의 假傳考」, 『중국문학보』 2호, 단국대, 1975, p.37.

33) 安秉高, 「蘇東坡의 假傳考」, 『중국문학보』 2호, 단국대, 1975, p.34.

34) 柳奇玉, 「文房四友의 文學的 變容-<文崇四侯傳> 評釋을 중심으로-」, 『韓國語文學論考』, 태학사, 1996.

교화하는 교훈적인 주제 의식, 東國文風의 과시와 民族의 自矜心 고취 등으로 다양하게 변모되는 점에 있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특히 이러한 조선 후기 작품들의 다양한 주제 의식은, 중국의 경우 ‘제재면에서 事君類와 治世類가 대중을 이루고, 학문을 선양하기 위한 것이 드물다’<sup>36)</sup>는 지적과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

### 2.3. 文學史的 位置와 連繫的 特性

權擘의 <管城侯傳>은 종이를 소재로 한 고려조 李詹의 <楮生傳>을 이어 붓을 소재로 한 한국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창작된 점에서 우선 그 문학사적 위치가 주목되는 작품이다. 물론 그가 남긴 풍성하고 다채로운 한시 작품들에 비해, 비록 21세의 습작으로 두드러진 문학과 독창성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 말 조선 초 假傳 문학사에서 볼 때, 사대부들의 글쓰기 양식과 그 제재 및 소재의 원천과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특히 그동안 붓을 단독 立傳한 작품으로 알려졌던 韓星履의 <管城子傳>보다 340여 년 전에 창작되어, 붓이라는 동일 소재에 먼저 用心했던 점도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단일 소재만을 볼 때, 중국의 경우 筆硯紙墨으로 통칭되는 순서로 작품이 창작되었음에 반해, 우리의 경우 종이 소재 假傳은 중국보다 2세기 먼저 선을 보이면서 紙筆墨硯의 순으로 관심을 기울인 점에서도 창의성과 문화적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假傳 문학의 嚆矢격인 唐代 韓愈의 <毛穎傳>이

35) 柳奇玉, 『韓中 文房四友系 假傳의 文學的 變容 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제43집, 1999, pp.136-142.

36) 安秉高, 『寓言傳記의 形式과 題材』, 『중국학논총』 4집,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1988, p.37.

37) 趙載道の 먹을 의인화한 <陳玄傳>은 제목 밑에 14세 작이라고 부기되어 있다(安秉烈, 『韓國假傳研究』, 자료편 p.369) 金壽桓의 <花王傳>은 역시 16세 작이라 부기되어 있다.(p.375), 또한 申弘遠의 <四友列傳> 제목 밑에 부기된 小序에는 “寓言이다. 필경 筆硯을 踏襲함을 면치 못하니 보는 자는 이를 가려서 보아라”는 주가 붙어 있다. 이처럼 寓言의 假傳 작품들이 조선조 문인지식층의 관습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일찍부터 자리해 왔음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창작된 이래 韓中 假傳 작품의 구성형식은 물론 표현수법과 의인화 명칭, 소재의 취사선택 및 변용에 있어서 폭넓고 다양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만을 보더라도 중국의 경우, <文崇管城侯毛元銳傳>(붓) <文崇卽墨侯石虛中傳>(벼루) <文崇好時侯楮知白傳>(종이) <文崇松滋侯易玄光傳>(먹), 宋代의 文豪인 蘇軾의 <萬石君羅文傳>(벼루), 明代 焦竑의 <翟道侯傳>(먹), 閔文振의 <楮待制傳>(종이), 清代 申涵光의 <毛穎後傳>(붓), 張潮의 <楮先生傳>(종이), 그밖에 硯滴을 의인화한 陳詩教的 <陶水部傳>과 趙佑宸의 <水中丞傳>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고려조 李詹(1345-1405)의 <楮生傳>, 조선조 權擘(1520-1593)의 <管城侯傳>, 金奭行(1688-1762)의 <陳玄傳>, 南有容(1698-1773)의 <毛穎傳補>, 趙載道(1725-1749)의 <陳玄傳>, 朴允默(1771-1849)의 <楮白傳> <毛元鋒傳> <陳玄傳> <石坦中傳>, 釋 應允(1743-1804)의 <硯適傳>, 申弘遠(1787-1865)의 <四友列傳>, 韓星履(1880년 경)의 <管城子傳>, 安 曄의 <文房四友傳>, 崔絃達(1867-1942)의 <硯適傳>, 具永會(1911-1984)의 <文房四友傳> 등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다채롭게 창작되었다.

이제 이들 작품의 선후관계를 고려해 볼 때, 權擘은 企齋 申光漢의 문하생으로 企齋의 『企齋記異』에는 文房四友를 의인화한 假傳풍의 自敍傳的 傳奇 작품인 <書齋夜會錄>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그 영향관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인 石洲 權鐸의 <郭索傳>과 <酒肆丈人傳> 역시 조선조 서사문학사상 傳과 擬人文學의 맥을 잇고 있는 점에서 이들 모두 소설사적으로 값진 문학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통해 조선 초 擬人文學의 발전 및 변모 양상은 물론 文房四友系 假傳 창작의 취향과 영향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끌만하다. 앞 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管城侯傳>은 그 효시격인 <毛穎傳>은 물론 표현 수법상 蘇軾의 <萬石君羅文傳>과 유사하며 일부 字句까지 그대로 정확히 적출해서 사용한 일면을 보여준다. 주제면에서는 文崇이 남긴 <文

崇四侯傳>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金駟孫의 <管處士墓誌銘>과도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들의 필수적인 애완물인 文房四友 소재 漢詩文 창작에 기울인 지속적인 관심과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事文類聚』 『文房四譜』 등 백과사전적인 類書를 참고함은 물론, 같은 양식의 假傳群과 이질적인 문체인 墓誌銘까지도 그 소재적 원천으로 골고루 활용되고 있음도 주목된다. <管處士墓誌銘> 말미에 ‘智永은 塚만 해주고 誌가 없으며, 韓愈는 傳만 지어주고 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誌를 짓고 銘을 짓는다’<sup>38)</sup>는 표현을 보면 假傳뿐만 아니라 誌, 銘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중엽 이후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立傳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창작된 假傳 작품은, 단순히 중국 작품을 탐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일면도 있지만, 假傳을 독립적인 문학 장르로 인식하고 소재의 변용 및 독창성을 모색하며, 假傳의 문학성을 확립하고자 한 조선조 후기의 일부 작품들은 그 質量면에서도 귀중한 문학유산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작자의 術學性을 과시한 戲筆的 성격을 지닌 작품도 없지 않고, 문학성이 결여된 작품도 적지 않다.

따라서 <管城侯傳> 역시 그 이후에 창작된 같은 계통의 다양한 작품들과 비교해 볼 때, 굳이 탁월한 문학과 독창성은 찾기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조선조 假傳 문학의 문학사적 위치에 있어서 그 자체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3. 結言

지금까지 權擘의 <管城侯傳>을 대상으로 소재의 取用 및 立傳 양상과

38) 智永塚而無誌 韓愈傳而不銘 故既誌又銘(『동문선』, 전개서, p.795) ‘智永’ 관련 기사 역시 『事文類聚』 별집 권14 文房四友部 筆, 筆塚에서 인용한 표현이다. 智永은 王羲之의 후손으로 王羲之의 서법을 전하기 위해 천자문 800여 권을 지방에 전한 서예가이다.

寓意的意味, 그리고 文學史的位相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한국 假傳文學史에 있어서 고려조 林椿의 <麴醇傳>은 최초로 창작된 假傳 작품인 점에서 우선 그 문학성이나 독창성과는 별개로 文學史的 의의가 부각되고 주목되어온 작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權擘의 <管城侯傳>은 고려조 李詹의 <楮生傳>을 이어, 붓을 단일 소재로 한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 중, 조선조에서는 현재 발굴된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인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논급되지 못한 실정인 바,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梗概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그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자리매김하기 위해 소재적 원천 및 假傳의 형성과 전개에 따른 영향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韓中 假傳 문학의 효시가 되는 韓愈의 <毛穎傳>, 文崇의 <(文崇)管城侯(毛元銳傳)>, 蘇軾의 <萬石君羅文傳>과의 親緣性을 확인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은 물론, 특히 한국의 경우 金駟孫의 <管處士墓誌銘>과 밀접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고찰해 보았다. 이제 이상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여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 事件構成 및 類型면에서는 앞서 창작된 <毛穎傳> <文崇四侯傳> <萬石君羅文傳>과 마찬가지로, 史傳 正體의 구성 방법인 序頭-先系-事跡-終末-後系-評結 형식을 고루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評結部 論贊 형식은 史氏贊曰이라는 용어를 습용하고 있어 타 작품과 변별된다.

素材의 取舍選擇과 變容 양상에 있어서는 소재의 원천으로 『事文類聚』와 같은 백과사전적인 類書의 영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蘇軾의 <萬石君羅文傳>과의 비교를 통해 일부 字句마저 거의 일치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金駟孫의 <管處士墓誌銘>의 영향관계가 주목되는 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類似한 典故가 거의 동일하게 활용됨은 물론, “效五色瑞於江海 呈青鏤異於紀小瑜”와 같은 표현에서는 字句마저 동일하게 襲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글쓰기 양상은 특히 조선 후기 假傳 작품을 창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管處士墓誌銘>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료로, 申弘遠의 <四友列傳>에 이르면, <管處士墓誌銘>에 나오는 조선 전기 서예가인 神童 朴訥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수용됨은 물론, 尾生이란 이름을 비롯, 亥生, 羔裘族, 중앙색(황색) 등 다수의 표현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어 그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입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들의 필수적인 애완물인 文房四友 소재 漢詩文 창작에 기울인 지속적인 관심과 취향을 확인함은 물론, 일찍부터 문인지식층의 글쓰기 양식으로 자리 잡은 傳, 擬人文學, 寓言, 假傳의 연계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假傳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서 『事文類聚』와 같은 類書의 취합된 정보를 활용함과 동시에, 같은 양식의 假傳群은 물론사물을 의인화한 이질적인 墓誌銘에 이르기까지 소재적 원천으로 이들이 골고루 섭렵 활용되는 점을 살펴보았다.

핵심 내용 및 作意와 主題意識에 있어서는 寵臣이 늙어서 소외되거나 때에 맞춰 물러나지 않아 失寵후 疏外되는 諷君戒臣類의 <毛穎傳> <萬石君羅文傳>과는 달리, 끝까지 남다른 탁월한 능력으로 功績을 세우고 終身 寵愛를 받으며 錦衣還鄕을 기리는 점에서 文崇의 <(文崇)管城侯(毛元銳傳)>과 倣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管城侯傳>은 韓愈의 <毛穎傳>에 비해 625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가 있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한국 文房四友系 假傳 작품 중 붓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가장 먼저 창작된 점에서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가 주목되는 작품이다. 權擘은 企齋 申光漢의 문인이자 石洲 權驥의 부친으로, 이들이 남긴 『企齋記異』, <郭索傳> <酒肆丈人傳> 역시 조선 전기 고전소설사에서 중요한 문학유산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傳 양식과 擬人文學의 발전 및 변모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假傳 창작의 취향과 중국 假傳의 도래 이후, 선행 假傳의 영향 및 連繫性과 獨立性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될만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文房四友는 선비들의 필수적인 愛玩物로 韓中 假傳文學史에 중요한 소재로 立傳되어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시도되지 않은 일부 작품과 동일 소재의 작품들에 대한 總體的이고 通時的인 연구가 요구된다. 중국 文房文化의 產物을 수집하고 한국 漢詩文과의 비교 연구도 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權 擘, 『習齋集』, 한국한문학자료총서 4권, 민창문화사, 1995. 고려대 중앙도서관, 신활자본(D-A553)
- 金駟孫, <管處士墓誌銘>, 속동문선 권20, 고전국역총서 『동문선』 XI, 민족문화추진회.
- 具滋武編, 『韓國文房諸友詩文譜』(上中下), 보경문화사, 1994.
- 雷瑄編, 『古今滑稽文選』, 대만 광문서국, 1979.
- 『四庫全書』, 제 843책, 子部149 譜錄類(대만 상무인서관 발행).
- 蘇易簡, 『文房四譜』, 『欽定四庫全書』, 子部 9, 843-1~843-62.
- 張 英외, 『淵鑑類函』 권205, 文學部 13, 14.
- 祝 穆, 『事文類聚』, 地(別集 권14), 文房四友部. 서광학술자료사, 1985.
- 김삼대자, 『朝鮮時代文房諸具』, 국립중앙박물관, 1992.
- 金昌龍, 『韓中假傳文學의 研究』, 개문사, 1985.
- \_\_\_\_\_, 『중국 假傳 30선』, 태학사, 2000.
- \_\_\_\_\_,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 \_\_\_\_\_,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앤씨, 2006.
- 김현룡,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일지사, 1976.
- 安秉烈, 『韓國假傳 研究』, 이우출판사, 1986.
- 安秉高, 『蘇東坡의 假傳考』, 『중국문학보』 2호, 단국대학교, 1975.
- \_\_\_\_\_, 『傳의 文學的 變容』, 『한국학논총』 제2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79.
- \_\_\_\_\_, 『寓言傳記의 形式과 題材』, 『중국학논총』 4집,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1988.
- 柳奇玉, 『存齋 朴允默의 假傳 研究』, 『인문논총』, 제23집, 전북대 인문과학연구소, 1993.
- \_\_\_\_\_, 『文房四友의 文學的 變容-〈文崇四侯傳〉 評釋을 중심으로-』, 『韓國語文學論考』, 태학사, 1996.
- \_\_\_\_\_, 『安 曄의 文房四友傳 研究』, 『국어문학』 33집, 국어문학회, 1998.
- \_\_\_\_\_, 『文房四友系 假傳文學의 變移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41집,

- 한국언어문학회, 1998.
- \_\_\_\_\_, 「韓中 文房四友系 假傳의 文學的 變容樣相과 意味」, 『한국언어문학』 43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 \_\_\_\_\_, 「申弘遠의 四友列傳 研究」, 『한국언어문학』 제5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3.
- 李炳赫, 「李穀의 竹夫人傳」, 『韓國漢文學의 探究』, 국학자료원, 2003.
- 정 민, 『목릉문단과 석주 권필』, <翫齋 權擘의 문학과 翫齋集에 대하여>, 태학사, 1999.
- 趙南權·鄭珉 共譯, 『韓國古典批評論 資料集』, 태학사, 1998.
- 曹壽鶴, 「假傳의 編綴性」, 『영남어문학』 1권, 영남어문학회, 1974.

## The aspects to deal with materials and the connection reflected in Kwanseonghoojeon(管城侯傳)

You, Gi-ok

This thesis is intended to study Kwanseonghoojeon(管城侯傳) written by Kwonbyok(權孳) in the light of the aspects selecting and using the subject matter, the allegorical meanings, and the status in the literary history.

This work is worth giving significance in the literary history in that it was the first created one known to date of all the works of Kajeon Literature(假傳文學) that treated a writing brush as a subject matter.

In the categorical feature, it adhered to the basic style of Sakiyeojeon(史記列傳), and it used the terms of Sassichanwal(史氏贊曰) in commenting formality.

It confirms the direct influence of Manseokgunlamunjeon(萬石君羅文傳) and Kwancheosamuojimyoung(管處士墓誌銘), not to mention

Samunyuchi(事文類聚), in the aspects selecting and using the subject matter.

In the theme, it bears resemblance to MoonsuengSahoojeon(文崇四侯傳) by Moonsueng(文崇) in that it admired winning a king's favor and returning home loaded with honors.

Finally, it deserves to our attention in that through the work we come to discover the growth and 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s of personification and

Kajeon Literature(假傳文學) in the early-Joseon Dynasy.

Key words : Kwanseonghoojeon, Kwonbyok, Kwancheosamuojimyoung, MoonsuengSahoojeon, Manseokgunlamunjeon, The status in the literary history, The aspects selecting and using the subject matter

이 논문은 2008년 12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09년 1월 23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